

평화의 몸짓 '아시아마임캠프'

22~23일 광주 5·18민주광장
일본·중국·홍콩·태국 등 20팀
평화 주제 전통극·즉흥 공연
관객 참여 '거대 공' 퍼포먼스

민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마임극을 선보이는 '2018광주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마임캠프'가 열린다. 22일 오후 4시~23일 자정까지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태국에 이르는 아시아 5개국 총 20여 팀의 마임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아시아 최초로 1박 2일 캠프형식의 마임 축제를 펼친다.

마임 아티스트 유진규와 중국 기예단 소속 아티스트 공 듀웨이, 우 예팡, 일본의 하시모토 후사요, 태국의 에논카손, 대만의 원 위충 등이 참여한다.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씨는 건국대 수의학과를 중퇴한 뒤 1972년부터 마임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가면·몸·마임' (2015), '왜놈대장 보거라! 우리의 자유를' (2016) 등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두 마임리스트'를 선보였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인 광주 5·18민주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20개의 텐트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또 각 팀의 공연 외에도 아시아평화를 주제로 한 집단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집단퍼포먼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두 차례 공연한다.

집단 퍼포먼스 외에도 개인작품과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유진규는 땅의 경계, 색깔의 경계를 허무는 남북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해낸 '한 번 더 날아보자'를 준비했다. 공 듀웨이, 우 예팡은 'ACROS SHOW'라는 작품을 통해 경계와 변경, 아크로바트의 인기 에피소드를 총결집했다. 하시모토 후사요는 일본 전통 무용극에 마임을 결합한 즉흥 공연을 펼쳐 보인다. 에논카손은 코미디 마임



오는 22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마임캠프'에 참가하는 일본 극단 '만스케'.



마임리스트 '팀클라운'

에 유니버스 드라마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아시아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22일, 23일 오후 4시에는 공연자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부터 충장로 일대까지 퍼레이드를 펼치며 광주의 아픔을 '민주와 평화'로 승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를 깃뚫었던 군화의 흔적을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지워내는 퍼포먼스부터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현한 거대한 공도 등장한다.

22일과 23일 오후 5시 18분에는 5·18민주광장 시계탑 앞에서 아시아 마임 아티스트들이 5월 광주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표현해내는 행사다. 무료관람. 문의 062-223-041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호남예술제 출신 남린·빈 자매 '라이징 스타'

언니 린, 금호영재 오디션 합격
동생 빈, 동아주니어콩쿠르 1위



남린(오른쪽)·남빈 자매

호남예술제 바이올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남린, 남빈 자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던 언니 린(서울 예원학교 2년)은 최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금호영재 콘서트 오디션에 합격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선정하는 오디션에 밝힌 린양은 2019년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열 예정이다. 린양은 2012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진행한 금호주니어 콘서트에도 선정돼 독주회를 열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14~2017년 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 과정에 재학중인 린양은 '바이올린 대모' 김남운 선생을 사사하고 있으며 올해 KT&G와 한국 메세나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메세나 음악장학생'으로도 선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 시리즈 연주회 무대에 서기도 했다.

역시 호남예술제에서 수상했던 동생 빈(서울

신중초 6년)양은 최근 막을 내린 제2회 동아주니어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경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빈양은 또 오는 21일 청주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하는 '영 비루투오소 콘서트' 오디션에도 합격, 청주시향과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1악장을 협연할 예정이다. 빈양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16년, 2017년 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 재학중이며 역시 김남운 선생을 사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내일 강연군 작업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가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열한번째 행사로 강연군 화백 작업실을 20일 오후 3시 방문한다.

이번에는 미술계 원로 강 화백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미술의 역사를 들여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시 동구 소태동 강 화백의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강화백과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의 대담,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술 세계 및 주요 작품 흐름, 95광주통일제 이야기, 1997광주비엔날레 총괄 운영자로서 회고와 보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강연군 화백

강화백은 197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회의 개인전과 기획전에서 참여했으며 한국민예총공동위원장,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겸 제2회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광주주미술 상운영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역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내달부터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내달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 공제' 제도가 7월 1일 시행된다. 이 같은 소득 공제 혜택은 10년이 넘는 문화예술훈예에 대해 확대하고 문화예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이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누구나 소정의 기술적 절차를 거쳐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

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이,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역사문화 웹툰 50편·지도 6종 나온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

광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한 웹툰 50편과 역사문화지도 6종을 제작해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www.gjstory.or.kr)에 탑재하고, 광주역사문화 관련 정보가 집적되고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2018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을 올해 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집적할 수 있도록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광주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웹툰, 영상,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2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실에서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이동순 조선대 교수, 이항준 전남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자문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6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워크숍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재단 8층 강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차 성평등정책 현안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현안워크숍에는 박정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가 강사로 나서며 시민들과 불법영상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워크숍을 통해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로 보인 흉대 누드크로키 불카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근본적 사회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053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